

# “탄핵 정국 침체된 경제 살리자” 전남도 잔걸음

### 소상공인·도민 일상 회복 등 1185억원 규모 종합 대책 마련 석유화학 중기 예비비 지원...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행사

비상계업과 탄핵 정국으로 지역 경제 현상이 침체되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잔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격려하는 것을 비롯, 지역 핵심 산업인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불황으로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잇따라 찾아 경영 안정에 필요한 예비비 지원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다양한 할인 상품 판매 방안 등으로 경제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순천 중앙 상점가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목소

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소개하며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 순천 중앙 상가 인근 소상공인 20여명이 함께했다. 상인들은 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분위기 침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중·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1185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소개하고 격려했다. 국비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으로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영세 음식점업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방안, 공공·상생배

달업을 통한 소비 촉진 지원책 등은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전남 경제장상의 핵심이지만 최근 수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도 관심사다.

최근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들의 불황 여파로 기자재 제조·납품 중소기업, 유지·보수를 맡은 플랜트 분야 60여개 중소기업들은 수주 물량이 전무하거나 10분의 1로 떨어지는 등 입금이 부족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여수국가산업단지 ㈜용호기계 기술 공장도 방문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담조직을 꾸리는 한편,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용호기계기술은 여수지역 대표 플랜트 제조기업

이지만 최근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매출액이 줄어 적자 전환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 분야 대기업 신규 투자나 유지보수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연관 중소기업도 매출이 감소해 직원들 고용 유지가 어렵다”며 고용유지, 전기로 지원 등과 함께 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 대형 국가사업 등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난 상황에 준해 올해 예비비를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소 배관망 구축, 지속가능항공유(SAF) 기술개발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확보해 여수산단 내 플랜트회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500여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설 명절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마련, 진행중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생명농대 신입생 모집 도농기원, 2월 14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25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1년 과정으로 디지털마케팅 20명과 친환경특용작물 20명 등 40명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함께할 계획이다. 디지털마케팅 과정은 농식품 유통 환경에 적용 가능한 챗지피티(ChatGPT) 활용 방식과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숏폼 및 릴스 제작,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SNS마케팅 등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익힌다.

친환경특용작물 과정은 아쿠아포닉스, 큐브, 스마트팜 시설 등 첨단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 생산법과 기능성 고부가가치 특수작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희망자는 전남도농업기술원(농업교육과)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자치경찰위 보고회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자체 보고회를 열고 2024년 펼쳤던 자치치안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분석하는 한편, 2025년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제감도 높은 치안 정책 추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 황칠나무 향수 나왔다

### 산림연구원 ‘골든 트리’ 개발...신경안정·진정효과

황칠나무의 천연활을 활용해 신경안정·진정효과가 있는 향수가 나왔다.

황칠나무는 완도, 해남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난대수종으로, 높이 15m까지 자라는 늘푸른 큰키나무다. 어린잎이 3~5갈래로 갈라지고 성목은 7~8월 수피에 상처가 나면 나오는 노란색 수액을 황칠액이라 한다.

산림연구원은 이같은 황칠액을 활용한 향수 ‘골든 트리’(사진)를 개발했다. 골든 트리는 ‘황금색 질이 나오는 나무’라는 의미다.

연구원은 앞서 황칠액의 향기가 뇌파 실험을 통해 알파( $\alpha$ )파를 증가하는 등의 생리적 진정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는 한편, 기분상태 설문(POMS)을 통한 우울, 분노, 적대감, 피로감 등 심리적 안정효과 등을 보이는 것도 확인했다. 2010년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에 이같은 결과를 발표도 했다.

지난해에는 황칠나무의 향기 성분을 분석해 천연향우물제로서 신경안정과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인 캐리오피렌(Caryophyllene)과 두



통·신경장애·불안·히스테리 등 치료에 사용되는 감마-뮤롤린( $\gamma$ -Murolone)을 확인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황칠액을 포함한 황칠향수 개발 기술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전남의 비고유 위 산림수종에 대한 향료 소재개발 등 고부가 가치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부 어설픈 정책으로 돈줄 막혀” 청년 농업인들 ‘거리로’

### 정책 자금 제외로 추가 자금 확보 어려움...대책 마련 호소

정부의 어설픈 농업 정책으로 피해를 본 청년 농업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정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을 믿고 우선 투자했던 젊은 농업인들이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 소속 청년농업인 100여 명이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애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내걸고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5%의 장기 저리 대출(5년 거지

20년 상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올해 자금이 부족해 지원 방식을 바꾸면서 대상자로 선발되고도 제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속출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6000억원 규모로 삭감된 채 반영됐고 국회에서조차 증액 협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당장, 전남에서도 609명의 대상자가 올해 육성자금을 신청했는데, 이들 중 183명만 지원받게 되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확보에 실패해 농업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형편이다.

전국적으로도 무려 3845명이 정책 자금을 신청했는데, 무려 2812명이 탈락했다는 게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장흥 1) 도의원 분석이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지원 대상자로 농·축·사 계 약금을 날리게 됐다거나 미리 투자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사례 등을 호소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정부의 예산 축소와 줄속행정으로 농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립대, 라오스 폴리텍대학과 협약

전남도립대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최근 라오스 폴리텍대와 드론 기술,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립대는 협약 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촬영 및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3D맵핑 기술 등에 대한 드론 시연도 진행했다.

또 드론 관제 시스템과 코딩 체험을 공유하며 라오스 폴리텍대 드론 학과 신설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 전략도 논의했다.

두 대학은 드론 학과 신설, 교육 콘텐츠 공유,

국제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제 교육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양국이 협력해 드론 기술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를 포함한 글로벌 드론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